

몸을 위한 생명의 체험과 성장과 사역

(토요일—오전 2부 집회)

메시지 5

부름받은 사람의 완전한 체험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자격 있는 종이 됨

성경: 출 3:2-4, 6, 8, 14-15, 4:3-4, 6-7, 9, 14하-16, 24-26

- I. 모세는 역사상 완전하고 자격 있고 온전하게 된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이였다. 모세는 성경에서 완전한 자격을 갖춘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표준적인 본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종이 부름받는 것의 표준이다 — 비교 출 2:11-15, 행 7:22-30, 34-36, 히 11:28.

- II.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의 이상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 행 7:22-36, 출 3:2.
 - A. 창세기 3장에서 가시나무는 타락한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죄는 저주를 가져왔고, 저주는 차단하는 불꽃을 가져왔다 — 창 3:17-18, 24.
 - B. 출애굽기 3장에서 저주받은 가시나무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불꽃은 가시나무 떨기와 하나가 된다 — 출 3:2-4.
 1. 구속을 통해 저주가 없어졌으며 불은 가시나무와 하나가 되었다.
 2.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는 저주를 없애셨고, 불이신 그 영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다 — 갈 3:13-14, 눅 12:49, 행 2:3-4.
 - C. 이것이 보여 주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다만 불이 그 속에서 타오르는 가시나무 떨기(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 — 창 3:17-18, 24)라는 것과, 이 불이 거룩하신 삼일 하나님 자신, 곧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 신 33:1, 16, 막 12:26.
 - D.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기록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증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 신 33:1, 16, 막 12:26.
 1. 타락한 사람을 위해 죽음을 당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양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하여(창 4:4), 창세기 3장의 차단하는 불꽃이 출애굽기 3장의 방문하고 거주하는 불꽃이 되었다 — 갈 3:13-14, 롬 12:11, 딤후 1:6-7.
 2. 가시나무 떨기가 불이 붙었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연료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 자신만을 연료로 하여 타오르실 것이다 — 출 3:2, 롬 12:11, 딤후 1:7, 골 1:29.
 3.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의 표징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수단인 그릇, 곧 통로라는 것을 그에게 새겨주셨다 — 고후 4:7, 빌 1:20, 25-26.
 - E. 교회는 부활의 하나님으로 불타는 단체적인 가시나무 떨기이다 — 비교 창 2:22, 엡 2:6.
 1.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거처를 얻으시는 것, 곧 그분의 처소를 건축하시는 것이다 — 요 1:14, 2:19, 고전 3:16, 계 21:3, 22.
 2. 교회는 구속된 인성 안에서 불타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성한 경륜이다 — 눅 12:49, 행 2:3-4.

3. 오늘날의 교회를 예표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속받고(출 13:14-16) 거룩하게 되고(2절) 변화되고 건축된 단체적인 가시나무 떨기였다.
4. 교회가 가련하다거나 수준이 낮다거나 죽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욱더 저주 아래 두게 된다. 그러나 교회생활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생활에 관해 좋게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축복 아래 두게 될 것이다.
 - a. “그분은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지 않으시도다.” — 민 23:21.
 - b. “야곱이여, 그대의 천막이, 이스라엘이여, 그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수려한지!” — 민 24:5.
 - c. “그대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대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 민 24:9하.
5.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분열, 죄, 혼란, 은사의 남용, 이단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모인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는 신성하고도 영적인 본질이 실지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 고전 1:2.
6.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인 단체적인 가시나무 떨기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부활 안에 있는 문제이다.
 - a.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부활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다 — 비교 창 2:22, 엡 1:19-23, 2:6.
 - b. 부활은 신성한 경륜의 생명 맥박이자 생명선이다 — 고전 15:12, 행 13:33, 고전 15:45하, 뱀전 1:3.
 - c. 주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부활 능력으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수고할 때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며,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인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 고전 15:58, 3:12.

III.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한다.

- A. 모세를 부르신 분의 이름은 ‘나는 ...이다’이다 — 출 3:14-15.
 1. ‘나는 ...이다’라는 이름은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긍정적인 것의 실재이심을 가리킨다 — 요 8:58, 6:35, 8:12, 15:1, 골 2:16-17.
 2.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다’이시고 우리는 ‘아니다’인 것을 알아야만 한다 — 히 11:6.
- B. 모세를 부르신 분은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셨다 — 출 3:6.
 1. ‘나의 조상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歷史)를 함축한다.
 2.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 고전 4:15, 17, 시 103:7, 빌 2:19-22.
- C. 모세를 부르신 분은 부활의 하나님이셨다 — 마 22:29-32.
 1.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부활시키시는 삼일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
 - a.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의롭다 하시며, 사람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살도록 장비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한다 — 창 12:1, 15:6, 17-18장, 19:29, 21:1-13, 22:1-8.
 - b. 이삭의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풍성을 유업으로 주시고, 그분의 풍성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아들 하나님을 상징한다 — 창 25:5, 26:3-4, 12-33.

c. 야곱의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사람을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게 하심으로써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며 생명 공급이신 아들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시는 영 하나님을 상징한다 — 창 27:41, 28:1-35:10, 37장, 39-49장, 롬 8:28-29.

2.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부활 안에 있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반드시 부활 안에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부활 안에서 해야 한다 — 엡 1:19-23, 롬 8:11, 고전 15:45하, 58, 비교 민 17:1-8.

IV.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 출 3:8.

- A.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부정적으로는 파라오와 이집트로 예표되는 사탄과 세상의 강탈과 폭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민을 구출하는 것이다 — 롬 1:16.
- B.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긍정적으로는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영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 실재화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선민을 인도하는 것이다 — 골 2:6, 갈 3:14.

V.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사탄과 육체와 세상을 처리하는 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원칙이다 — 요일 3:8, 갈 5:17, 요일 2:15, 비교 고전 2:11, 롬 7:18, 갈 6:14.

- A.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 뱀이 자신을 감추는 장소이다 — 출 4:2-4, 눅 10:19.
- B. 우리의 육체는 나병, 곧 죄와 썩음과 부패와 더러움의 조성체이다 — 출 4:6-7, 롬 7:17-18, 24-25, 사 6:5.
- C. 공급과 오락과 즐거움을 주는 세상은 죽음의 피로 가득하다 — 출 4:9, 요일 5:19, 갈 6:14.

VI.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짝을 이루고 잘려지는 체험이 필요하다.

- A. 부름받은 사람은 제한받고 보호받고 지켜지기 위해서 몸의 원칙 안에서 자신과 짝을 이룰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출 4:14하-16, 눅 10:1, 신 32:30, 전 4:9-12.
- B.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의 타고난 생명이 할례를 받는 주관적인 체험을 기꺼이 갖고자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의 손에 유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위해서이다 — 출 4:24-26.
- C. 하나님의 부름에 관한 모든 방면이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바란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칙을 알아야 함

위트니스 리 형제님 : 나는 니 형제님이 여기에 계시기만 하면 나의 영은 아무런 부담이 없고 내 영은 마치 잠을 자고 안식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니 형제님이 나에게 말을 하라고 하셨으므로 그래도 몇 마디 하고자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분에게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참으로 기능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우

리가 주님의 손안에서 유용하게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나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만났다. 나는 그들에게 기도가 없거나 사랑이 없거나 경건이 없거나 은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형제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일은 매우 적었다. 나는 이 일에는 틀림없이 원인이 있다고 느꼈다. 후에, 나는 형제자매들이 거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방 안을 햇빛으로 가득 채우고자 한다면, 북쪽에 창문을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도 역시 창문을 더 만들어야만 비로소 방 안을 빛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다. 창문을 많이 만들수록 더 많은 빛이 들어온다. 마찬가지로 만일 당신이 빛을 들어오게 하고자 하면서도 창문을 열지 않는다면, 설령 당신이 빛이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간구한다 하더라도 빛은 조금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도 이와 같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일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설령 당신이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하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칙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 될 수 있다. 형제자매들은 수 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법칙을 매우 분명하게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몇 가지 점에서 주의해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동역자들과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칙을 알아야 한다.

칠팔 년 전 어느 날 나는 방에서 이 문제를 묵상했다. 나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법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아주 기묘하게도 묵상하는 동안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는데, 그 음성의 내용은 가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일에 관한 내용을 읽으라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가서 출애굽기 3장을 읽었지만 별로 특별한 느낌이 없었다. 4장까지 읽자 각 구절마다 하나님의 빛 비춤이 있었다. 비록 큰 빛을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대단한 어떤 원칙을 보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모세가 배운 세 가지 공과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종은 모세이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종은 바울이다.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종으로 여겨졌다(민 12:7, 히 3:2). 영적인 원칙에 따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의 봉사는 그가 살았던 시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신구약의 시대와는 관계없이 모세의 일을 통제했던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종의 원칙이었다. 우리 모두가 모세의 배경을 알고 있으므로 나는 여기서 많이 말하지 않겠다. 그에게는 아주 좋은 환경이 있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므로 이집트의 모든 학문으로 자신을 장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좋은 땅으로 인도하도록 정해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과 학문과 구변 등을 다 더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부족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환경을 일으키셔서 그로 하여금 시내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하셨다.

모세는 광야로 이끌려졌는데 그 자신이 느끼기에도 하나님에 의해 한쪽으로 제쳐진 것 같았다. 광야에서 여러 해를 거치면서 그는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어버렸다(출 3:11, 비교 2:11-13). 그 자신도 팔십 세는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연수라고 시인했다(시 90:10), 그 자신이 볼 때

더 이상 시간도, 있을 곳도 없이 광야에서 그의 일생을 마쳐야 할 것 같았다. 모세가 자신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느꼈을 때인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때에, 하나님은 오셔서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이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면서 사양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아론과 미리암을 조력자로 예비하셨다. 그러나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 “저를 믿지 않거나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와는 그대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소.’”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1절)라고 말했다. 이것은 모세가 여전히 격려와 확신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밝혀 준다. 이로 인해 이후에 하나님은 세 가지의 기적을 통해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러한 기적들은 바로 모세가 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세 가지 일을 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 일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이고, 두 번째 일은 손에 나병이 든 것이며, 세 번째 일은 물이 피로 변한 것이었다(출 4:2-9, 17). 본래 지팡이와 손(살)과 물, 이 세 가지는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그것들은 세 가지 해로운 것, 곧 뱀과 나병과 피로 변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공과

나는 먼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기적을 말하고자 한다. 원래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의 주요 기능은 양을 치는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여정에서 사용되었다. 모세는 당시에 팔십 세였고 지팡이는 그가 의지하는 것이었으며 그의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물건이었다. 우리의 육체의 손안에는 비록 지팡이가 없지만 원칙상 우리 모두에게는 생활 가운데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 마치 상인은 상업이 그의 지팡이이고, 학생은 공부하는 책이 그의 지팡이이며, 아내는 그의 남편이 ‘지팡이’인 것과 같다. 지팡이는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며 우리를 지탱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많은 지팡이들이 있는데 어찌면 부모, 학문, 사업, 재물 등이 될 수 있다. 본래 지팡이는 유용한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하나님을 만진다면, 당신은 생활을 위해 의지하던 그러한 것들을 땅에 던져야 함을 보게 될 것이다.

나 자신이 부름을 받은 일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다른 유용한 증들이 부름을 받은 일에 있어서, 사람이 일단 자신을 주님께 드려 사용하시도록 할 때에 반드시 먼저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야 한다. 지팡이를 일단 땅에 던지면 그곳에 숨어 있던 뱀이 폭로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뱀은 이미 지팡이 안에 있었지만 반드시 지팡이를 던져야 뱀으로 변하며 그 원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 기적은 그가 의지하고 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빛 비춤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그 진상이 바로 뱀이라는 것이 폭로되었음을 보여 준다. 뱀은 첫날부터 분장하여 나타났다. 뱀은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어떤 사물 안에나 혹은 어떤 사물 뒤에나 아래에 자신을 숨겼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신 사람을 점유하는 것이다. 모세의 눈에 지팡이는 그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지팡이는 바로 사탄의 화신이었으며, 그 목적은 사람을 점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질 때 그것이 뱀으로 변하자 즉시 그는 두려워하며 물러서서 감히 그것을 잡지 못했다. 이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뱀의 꼬리를 잡게 하셨는데, 뱀은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했다. 이일이 있기 전 모세는 수년간 이 지팡이를 잡고 있었고,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그가 귀하게 여기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을 때 비로소 이 지팡이가 바로 뱀이며 그가

수년 동안 줄곧 그것에 점유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과거에 그가 의지하던 것이 실지로는 뱀이고 그를 해롭게 했던 것임을 보게 되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결코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를 ‘버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것의 참모습이 폭로 되게 하기 위해 그것을 ‘던지라’고 하셨음을 주의하라. 그러나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다. 남경에 어떤 책임 형제가 있었다. 그는 본래 상인이었지만 후에 상업이 위험하고 두려운 일임을 보고서 감히 다시 붙잡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꼬리를 잡아야 한다고 하셨다. 지팡이는 여전히 잡아야 한다. 그러나 꼬리를 잡아야 한다. 이것은 이전에는 지팡이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고, 이전에는 생활을 위하여 분투했으나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다.

산동에 있는 어떤 장로 형제는 그의 오랜 동반자인 아내가 늙은 뱀이고 그의 자녀들은 작은 뱀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랜 동반자에게 물려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뱀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감히 그것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던지고서 더 이상 잡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 던지는 것은 매우 쉽다. 다만 동서남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내와 자녀와 같은 크고 작고 늙은 뱀들을 떨쳐 버리는 것은 매우 쉽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우리로 다시 손을 뻗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다. 감추어진 뱀의 참된 본성이 폭로된 후에 당신은 그것의 꼬리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뱀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일 당신이 뱀의 머리를 잡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물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뒤로 돌아가서 뱀의 꼬리를 잡는다면, 그것은 즉시 힘을 잃고 무력하게 떨어져 올 것이다. 심지어 그것은 최종적으로 당신이 권위를 행사하는 통로가 될 것이며, 더 이상 당신을 압제하지 못할 것이다(출 4:4, 17, 눅 10:19). 만일 당신이 뱀의 꼬리를 잡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권위도 갖지 못할 것이다.

사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부모와 자녀 등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마 19:29). 그러나 서신서에서 바울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말한다(엡 6:1-3). 복음서에서 버리라는 것은 바로 지팡이를 던지는 것이고, 에베소서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지팡이를 잡는 것인데 곧 꼬리를 잡는 것이다. 이 지팡이가 바로 권위의 지팡이가 된다. 결국 모세가 이집트에서 기적을 행할 때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는 이 지팡이를 의지했다.

현재 홍콩 교회에서 대략 이백여 명의 형제자매들이 자신을 내맡겼다. 내가 말하건대, 이것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첫 번째 공과이다. 여러분의 모든 것과 의지하는 모든 것을 던진 후에 다시 그것의 꼬리를 잡아야 한다.

자신을 아는 공과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품속에 넣으라고 하셨다. 그가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을 때 뜻밖에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이것은 두 번째의 공과이다. 우리는 먼저 손안의 지팡이를 던져 뱀의 원래 모습이 폭로되게 하고 다시 그 꼬리를 잡아야 한다. 그런 후에 다시 두 번째 일을 행해야 한다. 우리는 단지 모세처럼 지팡이를 던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세처럼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을 때 나병에 걸리는 두 번째 공과가 있어야 한다. 품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상징하고, 나병은 죄를 상징한다(롬 7:17-18). 이것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에게 아무것도 옳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보아야

한다. 교회 중에서 나는 늘 어떤 형제자매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책망하는 것을 본다. 나는 이것을 볼 때 매우 화가 나는데, 왜냐하면 나는 형제자매들이 자신 안에 나병이 자라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육체를 안다면, 당신이 어떤 형제의 행위를 비판하려고 할 때 당신은 감히 비판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온갖 나쁜 것이 모여 있어서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더러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의 찬미와 사랑과 동정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다 나병에 걸려 있는 것이다. 뉴턴은 그의 찬송에서 그가 자신의 죄를 미워한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일단 자신을 보고 자신을 알게 되면 감히 입의로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다. 이는 자신에게 형제자매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때번 형제자매들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주님은 나에게 나 자신의 나병과 더러움과 불결함을 보여 주신다. 그때 나는 형제자매들이 설령 아무리 좋지 않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나는 감히 비판할 수 없음을 느낀다. 우리 자신 안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으며 실지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신 것이다(고전 15:10). 만일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안다면 저항하지 않을 것이고 겸손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또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병도 다 제해될 것이다. 사람에게 대한 불만이 없어지고 오직 자신에 대한 미움만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실상을 분명히 본 사람이라면 자신이 다만 한 무더기의 더럽고 부패하며 패괴하고 정결하지 않은 죄의 화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훈이 아니면, 실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자격이 없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늘 자백하고 기도할 것이다.

세상을 아는 공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사탄의 점유와 자기 육체의 패괴함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세상의 악함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세 번째의 기적은 바로 이것이다. “너는 강물을 조금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강에서 떠 온 그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출 4:9) 여기의 강은 바로 이집트 땅에 물을 공급하는 나일 강이며 세상의 타락한 누림을 상징한다. 이집트는 바로 세상을 예표한다. 성경에 근거하면 이집트는 나일 강으로 인하여 소산물이 가득했고 누림이 풍성했다. 나일 강은 바로 이집트의 생명줄이며 생활의 근원이었다. 피는 죽음의 표시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나일 강은 공급과 누림을 가져다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죽음이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이 풍성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누리며 보고 자기와 비교할 때, 당신은 즉시 자신이 얼마나 가련하고 빈궁하며 아무것도 없는지를 보게 된다. 특별히 학교에서 당신보다 공부를 못하던 친구가 성공하여 누리는 것이 당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면 당신은 더욱 그렇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물이 피가 되는 것을 보았다면, 사람들이 훌륭한 집을 누리고 자동차를 누리는 것이 피를 마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일단 당신이 의지하던 것이 뱀이고 당신 속에 있는 것들이 불결하며 당신의 주위에 있는 것이 피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자연히 이런 것들을 싫어할 것이다. 주님은 오직 그분이 주시는 물만이 사람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셨다(요 4:14). 사람들은 목이 마를 때 세상의 물을 마시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가 없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물만이 사람의 갈증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물만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있다. 우리가 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기 원한다.

계시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음

워치만 니 형제님 : 이 세 가지의 기본 공과는 하나의 기본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는 것’이다. 당신이 보았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과 분별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할 때, 당신이 보는 것은 지팡이일 뿐이고 자신의 손의 정결함일 뿐이며 이집트를 공급하는 물일 뿐이다. 그러나 당신이 일단 하나님의 계시를 얻는다면, 더 이상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손안에 있는 지팡이가 뱀이고 당신의 손은 불결하며 세상에 충만한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의 계시와 사람의 관점이 대비되는 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느냐고 묻는다. 문제는 당신이 지팡이가 뱀이고 손에 난 것이 나병이며 물이 피라는 것을 보았는지에 있다. 젊은 사람들은 야심이 있고 장밋빛 꿈을 꾸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꿈에서 깨어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기적들을 보고 행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동일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다. 본래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고자 하셨다. 모세가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지자 그의 느낌은 달라졌다. 예를 들어, 만일 지령이 한 마리가 이 컵에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목이 말라서 이 컵의 물을 마셨다고 하자. 다 마실 때쯤에 지령이를 발견했다면, 내가 내일 저녁에 물을 마시려고 이 컵을 볼 때 내게 어떤 느낌이 있겠는가? 아마 지령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시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본래 우리는 느낌이 없었다. 마치 모세와 같이 날마다 지팡이를 잡고 있었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그러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는 지팡이에 대한 모세의 느낌이 달라졌을 것이다.

육체에 대한 느낌도 이와 같다. 우리는 죄가 세상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흉악한 일이 세상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내 안에도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느낌이 없었다. 어느 날 내가 품속에서 손을 꺼냈을 때 나병이 난 것을 보았다면, 이후에는 나는 손을 만지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나병이 생각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겸손하고 연약하며 복종하는 것처럼 꾸미지만,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만일 사람이 계시를 얻지 못했다면, 의식적으로 겸손하려고 할 때에만 겸손한 모양을 갖고, 일단 잊어버리면 겸손하지 않게 된다. 매번 일을 할 때마다 그는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 형제자매들에게 권고의 말을 하거나 혹은 엄한 말을 할 때, ‘우리 품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나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 일하게 하시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얻은 계시가 얼마나 되는지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전에 한 형제가 나에게, “나는 아무리 연약해도 저 두 형제 보다는 강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자신의 패괴함과 더러움을 보지 못할까 염려가 되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의 물에 대해서도 느낌이 있어야 한다. 목마름이 그치려면 우리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아마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세상에 속한 지위와 축복을 얻기를 원했을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하나님에게서 철저한 계시를 얻어 세상에서 얻은 모든 만족이 실상은 피라는 것을 보기 바란다. 계시를 얻은 사람의 눈에는 물이 실상은 피이다. 설령 수

건이나 양말을 사는 일에 있어서도 물이 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이집트에 남아서 나일 강의 물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광야로 가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셔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아야 한다. 계시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묘한 무언가를 목격했다고 말할 것이다. 사람이 볼 때는 지팡이이고 품속에서 나온 손이며 나일 강의 물이지만, 일단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이상을 통해서 본다면 그것들의 참모습이 뱀이고, 육체이며, 피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 그럴 때 당신은 도망갈 것이고 두려워하며 떠나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의 참모습을 알게 해 주고, 가장 큰 죄가 바로 자아임을 알게 해 주며, 또한 세상의 악을 알게 해 준다. 세상에서 지팡이는 의지할 만한 것이고, 자아에서 나온 것은 좋은 것이며, 물은 마실 만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리 형제와 함께 여러분에게 요청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계시를 구하여 반드시 세상과 자아와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의 참모습을 보기 바란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워치만 니 전집, 62권, 88-100쪽)*